

금요기출회 해설

[25 6월 (12~17) 인문 지문 - 꿀은 맛있다]

[금요기출회]

매주 금요일 기출 한 지문 해설이 업로드됩니다. (독서 or 문학)

직접 풀고 저희가 가졌던 생각 및 시선을 꾸밈없이 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요기출회는

지문 내용의 완벽한 이해 또는 상세한 문제 해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관한 것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상위권은 시험장에서 어떻게 읽을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했을까’ 등의 시험장에서의 행동과 태도를 공유하기 위해 제작된 해설입니다.

빨간색은 생각의 과정

파란색은 추가 코멘트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감각]

문제부터 읽기(무슨 내용을 다룰까? 지문에서 무엇을 찾아볼까?)

(주의!) 빠르게 하지 못하면 전혀 의미 없습니다! 3등급 이하 수험생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12번

에이어의 생각을 확인해야겠구나. 도덕 용어, 주어&술어 ... 문장과 언어와 관한 내용이 전개되겠네?

#13번

문장 내에 포함된 구와 같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겠네?

#14번

도덕적 사실, 도덕 문장이 속성을 갖고, 객관적이니 뭐니 하는구나.

#15번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읽어야겠구나.

#16번

사례네. 넘어가자.

국어 영역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 펼쳤다.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제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 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진 긍정식이라 한다. 전진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에 전진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진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전진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진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진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이 쟁점에 대해 헵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진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가령 '굴은 맛있다.'는,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12. (가)에 나타난 **에이어**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국어 영역

13.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꿀은 맛있다면 꿀은 비싸다.’에 포함된 ‘꿀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③ ‘꿀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④ 화자는 꿀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꿀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14.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다음의 진술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견해를 작성해 봅시다.

| |
|---|
| <p>[진술 1]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①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
| <p>[진술 2]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③ • 행크스: 옳다. 도덕 문장은 도덕 용어가 나타내는 속성에 비추어 참 또는 거짓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
| <p>[진술 3]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④ •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될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⑤ |

15. 윗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16.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④ ‘꿀은 맛있다.’가 꿀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⑤ ‘도덕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수색하는
- ② ㉡: 제시하지
- ③ ㉢: 전파했다
- ④ ㉣: 발산하는
- ⑤ ㉤: 공개하여

지문 독해 생각의 흐름

(가) - 1문단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 도덕 용어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구나.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 그렇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 에이어는 도덕 문장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거구나!

주장을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파악하는 것만큼 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 두세요!

(가) - 2문단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 정의로 검증되면 분석적, 관찰이면 종합적.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으니 둘 다 아니구나.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했다.

→ 기존 논의와 에이어 모두 정의로 검증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구나.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술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 선은 가장 작은 단위에 무언가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없구나.

주장에는 이유가 포함됩니다. **주장과 그 이유가 포함된 문장은 반드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이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이 없겠네.

(가) - 3문단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했다.

→ 주장이네. 파악해놓자. 정서적이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 그렇구나.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 또 정의네. 파악해두자. 표현은 감정, 사실은 기술.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진리 적합성이 없겠네?

진리 적합성 = 옳고 그름에 관한 것. 치환된 용어를 최대한 자유자재로 다루는 노력을 해 봅시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 종합적 문장이네.

종합적 문장 =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 마찬가지로 치환입니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 도덕 문장이면서 표현적 용법이네. 일맥상통하는구나.

에이어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그렇구나.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 주요 주장이네. 파악해두자.

주장 파악.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새로운 사고를 열어 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 의의구나.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 그렇구나.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인 논증을 **전건 긍정식**이라 한다.

→ "P → Q." "P." "::Q."

논리학 기호입니다. 명제 단원에서 많이들해보셨을 겁니다.

전건 긍정식은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 전건 긍정식은 타당한 거구나.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예외네? 조건문 안에 들어가면 감정이나 태도를 포함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않다' 등의 서술을 독해할 때, 이미 서술된 내용을 직접 넣어 읽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굴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굴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 문제 상황 비스무리하네. 조건문에 들어가면 선호가 사라지는 거구나.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다.

→ 아이고 머리아. 이 P랑 저 P가 다르다는거고, 전건 긍정식이 틀리게 된다는거네.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 안 타당하다며?

전건 긍정식의 첫째 전제가 조건문입니다. 문제가 생기겠네요.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 그러네.

그러므로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전건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 에이어 얘기였구나.

이 쟁점에 대해 **헵크스**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였다.

→ 반가워요.

(나) - 2문단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 위에 나왔던 내용이네? 감정을 표현한 경우네.

문단을 더럽게 나눠서 그렇지, 에이어의 논지입니다. 주장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다.

→ 단독이 아니면 조건문이겠네. 암튼 판단적이고, 속성을 부여한다는거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지문은 그냥 이 문장 하나만 잡아도 아무 문제 없이 풀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 본질이 속성 부여. 첫문장 내용이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주장이네. 판단적이면 진리 적합성.

(가)에 있던 단어까지 치환!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으로 진술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 무조건이라고 했으니 별 문제 없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 에이어 편이네. 실제로 타당하면 논리학자랑 다르니까.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그러게요.

가령 ‘굴은 맛있다.’는,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 발현만 안되는구나.

밑줄 친 부분만 파악하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을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발체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

→ 본질 사라지진 않고 발현만 X.

문제

판단 과정 또한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2번

- ①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 기술 = 검증 ≠ 도덕 문장. 맞는 소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발췌하면 됩니다. 어떤 도형의 형태로 표시하였다면 찾기 쉽습니다.
- ②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 표현적이면 감정. 맞네.
- ③ 주어와 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 정의 그대로네.
- ④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실의 종류였나? 둘 중에서 기술적 용법만 사실을 전하는데? 나가.
저도 기억 못한 채로 풀었습니다. 발췌.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⑤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한 데에 기인한다.
→ 몰라 그럴겠지.

13번

무조건, 딱치고 판단적. 본질이 발현만 안됨.
정말 중요합니다. '굴'을 이해하려 하는 순간, 풀이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논지 하나로 밀어붙이세요.
해당하는 것만 빠르게 찾는 태도도 좋습니다. 모든 선지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 ① '굴은 맛있다면 굴은 비싸다.'에 포함된 '굴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 판단적이라며. 나가
- ②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 다 된다면. 나가
- ③ '굴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 된다면? 나가
- ④ 화자는 굴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굴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 판단적인 본질이 무조건 있다고 했으니, 틀린 내용이네.
- ⑤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 무조건 본질 유지되고, 발현만 안되는거니까 정답이네.

14번

쉬운 문제면 옳고 그름에 정오의 근거가 있고, 어려운 문제는 그 이유에 근거가 있습니다.

Q.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①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 모르겠다 그럴것지. 옳다고 하는건 맞으니 나중에 근거 발췌하자.

늘 말하지만, 선지를 처음부터 전부 다 꼼꼼히 검증하고 이해하려는 생각은 오만한 것입니다. 국어 시험은 80분 이기에, 그럴 시간은 저희에게도 없습니다.

②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 독립적인 것을 진술 못한다고 했으니 맞네.

Q.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③ 에이어: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 메인 논지니까, 당연히 맞지.

골랐으면 반성하세요.

Q. 전건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④ 에이어: 옳다. 도덕 문장은 전건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 무슨 소리야? 진리 적합성 없다고 했잖아.

⑤ 행크스: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내용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 메인 논지니까, 당연하지.

15번

전건 긍정식이 틀리게 되니까 나온 도덕 문장은 감정 표현이라는 에이어에 대한 비판.

의미를 미리 파악해두면,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 그만입니다. 그것으로도 풀리지 않을 때 본격적인 사고를 사용하면 됩니다.

① 에이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건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은 에이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 틀리게 되는거라니까. 나가

② ㉠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 타당하지 않거나, 포함 안되거나 둘중 하나니까 맞는 말.

③ ㉠은 전건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에 기초한다.

→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 조건문 얘기인가? 아니면 전제1&2인가?

④ ㉠은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 감정이랑 태도 내용이니까 당연하네.

⑤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 에이어 얘기니까. 애초에 그걸 반박하려고 만든 말이니 당연하겠네.

16번

보기: 태도에 관한 얘기네. 조건문에서 태도에 대한 태도가 나왔네. 태도는 진리 적합성이 없고, 암튼 조건문 있고 태도 있는 전건 긍정식 결론 옳다는 소리네.

- ①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 태도 ≠ 태도?
- ② 논증의 타당성이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을 논증에 나타난 태도 사이의 관계에 의해 규정할 수 있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전제와 결론의 참에 의해 규정된다면 몇몇 논리학자들이겠네. 무조건 상충하지. 전건 긍정식 옳다는 말이니까.
- ③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 전통 윤리학이네. 객관적 기준 있다고 했으니 다르지. 객관 대 주관이니까.
- ④ '꿀은 맛있다.'가 꿀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다는 주장은, '자선은 옳다.'가 자선에 대한 화자의 찬성을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감정이나 태도라고 했으니, 맞는 소리네.
- ⑤ '도둑질은 나쁘다.'가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므로 진리 적합성이 없다는 주장은, 폭력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 참, 거짓일 수 없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지 않는군.
→ 에이어는 감정의 표현이라 했으니 참 거짓이 없다고 했고, 태도는 주관적이며 참 거짓이 없다 했으니 당연하네.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만 알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7번. 어휘 스킵